

청춘발산마을 예술의 현장으로... 25일~10월 3일, 12명 작가 50여 작품 전시

나는

'청년작가들의 재기넘치는 작품을 만나다.' 젊음의 기운이 가득한 광주시 서구 청춘발산마을 일대 문화공간이 예술의 현장으로 변신한다. 젊은 패기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찾아가고 있는 청년작가들의 '현재'를 만날 수 있는 '나는 청년예술가입니다' 전시가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린다.

아트컴퍼니 모이모 주관  
뽕뽕 브릿지 등 6곳  
박화연·정유승 등 참여

광주시가 주최하고 아트컴퍼니모이모 주관, 사)아시아문화가 후원하는 이번 전시에는 모두 12명의 작가가 참여, 5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정 피난민들이 모여 살았던 광주의 대표적인 달동네 발산마을은 1970-80년대 방직공장이 들어서면서 서전국에서 몰려든 여공들로 한 때 활력이 넘치는 공간이었다. 세월이 흘러 쇠락해가던 마을은 지난 2015년 현대자동차그룹과 공공프러미엄의 '청춘발산마을' 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공간과 시설들이 조성되면서 문화와 예술이 마을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다. 특히 BTS 제이홉의 벽화는 전국적인 핫스팟이 됐다. 문화예술 공간으로 서서히 자리매김해가고 있는 발산마을과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막 만들어가는 청년작가들이 만나는 전시는 안성맞춤이다.

전시 참여작가는 지역에서 다양한 전시회를 기획한 큐레이터들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작가들은 회화, 조각, 도예, 설치, 미디어아트, 사진, 타투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자신만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뽕뽕 브릿지 등 발산마을 일대에 흩어진 6개 문화공간에서 동시다발로 열리는 게 특징이다. 기획전은 정형화된 갤러리 대신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자유롭게 전시할 수 있는 다채로운 공간에서 관람객을 만난다.

뽕뽕 브릿지에서는 4명의 작가가 작품을 선보인다. 강부연 작가는 사라지고 지워지는 길 위의 풍경들을 담은 작품을 전시하며 문창완 작가는 실제 느티나무를 비닐로 감싸는 노동행위를 담은 미디어 아트 작품을 선보인다. 또 윤태준·김소희 작가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라피아아트갤러리'에서는 타투이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은주 작가와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했던 박화연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다. 또 독립창작 공간에서는 이정은·정유승 작가 작품을, 발산마을 역사문화박물관에서는 하도운·김은경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그밖에 강지향 작가는 Aimceramic 스튜디오에서, 윤석문 작가는 발산마을 카페를 전시공간으로 활용한다.

윤석문 작가의 작품은 아트키트로 제작해 전시 참여 관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10월2일에는 윤 작가가 참여하는 아트클래스도 진행된다.

2014년 창립한 아트컴퍼니모이모는 오전마을 재생프로젝트 '양동힐링 정원', 상생아트페어 '동행, 예술가와 함께', 5·18 40주년 기념전 '더 커다란 폭력', 광주여성가족재단 허스토리 기획전시 '휴먼미디어시티 광주 The First Moment' 등을 진행했으며 대인예술시장 아트플렉스샵 수작, 신양파크호텔 갤러리 미담을 운영했다.

서지안 아트컴퍼니 모이모 대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전시"라며 "청년작가들과 관람객의 소통을 통해 지역문화가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쉬는 날 없이 진행되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청년예술가

입니다



윤태준 작 'Reflection'



강지향 작 '높은굽다기세트'



김소희 작 'Message from future'

자연과 일상의 모습 '색이 주는 온도'

김수정 개인전, 27일까지 갤러리 관선재

자연스러운 번짐과 맑은 화면이 인상적인 수채화 작품을 만나는 전시회가 열린다.

김수정 작가 두번째 개인전이 오는 27일까지



'내가 좋아하는 식물들'

광주 예술의 거리 갤러리 관선재에서 관람객을 만나고 있다

'색이 주는 온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김 작가는 아름다운 자연풍경과 일상의 모습을 담아낸 작품을 선보인다. 수채화 물감으로 화폭에 풀어놓은 다양한 색감은 언제나 작가를 토닥토닥해주는 위로가 됐고, '내가 좋아하는 식물들' 등 이번 전시작에는 그 느낌들을 담았다.

푸른 기운이 가득한 숲 이야기나 봄여름가을겨울 계절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수국, 체리, 해바라기, 장미 등의 꽃과 나무, 물고기가 노니는 푸른 물속 풍경은 위안을 전한다. 또 유리창으로 번지는 빗물이 인상적인 비오는 날의 풍경이나 먹음직스러운 마카롱을 그린 디저트 시리즈는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작품들이다.

조선대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한 김 작가는 광주시미술대전 초대작가이며 한국여류수채화회, 광주사생회, The 맑은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도 역임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각양각색의 '하늘 빛 구름'

양경모 개인전, 10월 2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서양화가 양경모 작가는 지난 2000년 고도근시로 인한 망막박리로 그림을 그리는 게 예전같지는 않다. 사물이 구부러져 보이는 굴절형상과 시야



'하늘·빛·구름'

가 부분적으로 지워져보이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작품활동을 이어가는 건 녹록치 않았지만 붓을 놓지 않고 작업을 이어왔다. 양경모 작가의 5번째 개인전이 오는 10월2일까지 광주시 남구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열린다.

양림동 허철선 선교사 사택을 작업실로 쓰던 지난 2018년 여름, 양 작가는 눈이 시리게 푸른 양림동의 하늘을 그리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혔다. 하늘, 빛, 구름 작업들은 잘 보이지 않는 '눈'에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담아 바라본 풍경들이었고, 화폭에 풀어낸 장면들은 그에게 자유로움을 느끼게 했다.

'하늘 빛 구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만나는 작품들은 각양각색의 하늘을 담고 있다. 몽게몽게 피어오르는 구름은 자유로운 새의 형상이 되기도 하며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또 어둡한 하늘에 떠오른 한줄기 빛이나, 구름을 뚫고 모습을 드러내는 빛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다.

양 작가는 팸플릿 작가의 글 등을 점자로도 제작했다. 호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양 작가는 ART VISON, KNOC, 광주장애인미술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건넌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진혜진 시인 첫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추천사

"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현양대 국문과 교수

진혜진 시인 프로필 | 2016년 경남신문,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산맥 등단 |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크문화창작기금 수혜 | 제11회 시산맥작품상 수상 | 도서출판 상상인 대표